



NEWS LETTER

2020년 3월 30일 Vol. 365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의료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3월 19일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찾아 코로나 사태가 빨리 극복되길 바란다고, 동국대학교일산 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성금을 전달 했다.

전달식은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과 박찬정 사무국장, 동국 대학교의료원 조성민 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은 “총무 원장 원행스님께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 일선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국대학교의료원에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대신 전달하게 됐다”며, “이 기금은 전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성금인 만큼 뜻 있게 쓰이길 바라며,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일산 병원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동국대학교의료원 조성민 의료원장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의 귀중한 선물은 병원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싸우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이겨내는 코로나19’, 노사합동 전 직원에 간식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노동조합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았다. 지난 3월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의료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수제 쿠키 세트 전달했다.

노사는 ‘코로나19 OUT,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노동조합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격려의 문구와 함께 의료현장을 방문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노사협력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확산방지와 안전한 직장 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협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노사가 건강한 직장 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백유진 지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직원과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불자 내원객의 훈훈한 기부

고양시 건강식품 판매 업체인 ‘녹색하늘’ 진영진 대표는 지난 3월 19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마스크 1,500장과 손소독제 50개를 전달했다.

평소 불자인 진영진 대표는 “최근 고양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물품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의료현장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구입해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년도 CS우수부서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3월 19일, 2019년 한 해 동안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CS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9년도 CS우수부서는 총 3개 부서로, 진료부에서는 외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간호부는 111병동, 행정처에서는 원무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3개 부서에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현금 각 40만 원을 수여했으며, 부서 입구에 CS우수부서 상패를 1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CS우수부서 선정은 진료개시시간 준수율, 자체 환자경험평가 점수, MOT 모니터링 점수, 친절직원 추천 건수를 점수화하여 직종별로 우수 부서를 선발했다.

